현불 논단

시대 앞에 섰던 선지식 그립습니다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6월 8일 별세한 선진규 법사
마지막까지 현장 떠나지 않은
재가불자 선생님이자 선배님

생전 조성한 '호미 든 관음상'
'시대 변화' 요구 원력 담겨져

"베풀며 욕먹을 언행 말라"는
선진규 법사 수행수칙 되새겨야

늘 옆에 계셨고, 그래서 내일도 우리 곁에 여전히 서계실 줄 알았다. 멀리 살지도 않으면서, 한번 뵈러 가야지 하는 생각만 가끔씩 떠올렸다. 그러다 여러 불사(佛事)의 현장에서 뵙게 되면, "자주 가서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소리로 얼버무리곤 했다. 그럴 때면 "내 찾아올 시간 있으면, 게을리 사는 게지"라고 했던 눈에 선한 그 모습!

오랜만에 연구실을 찾아온 선진규 법사의 외손주 병주 군과 함께한 자리서 법사님 타계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지만, 또 어찌 보면 출재가를 막론하고 수많은 선지식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법사!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애썼던 재가의 선생님이자 아득한 선배님! 이것이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배웠던 후배들이 가지고 있는 법사님의 이미지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불교계의 재가 사회운동가보다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후원자라는 이미지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86살이셨던 바로 작년까지도 불교사회운동의 일선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던 사회 최일선의 젊은 실천가이셨던 분이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마을로 잘 알려진 김해 봉하마을 옆 나지막한 봉화산 산봉우리에는 특이한 모습의 관세음보살상 한 분이 봉하마을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관세음보살은 정병을 들고 있거나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산의 관세음보살상은 왼손에는 정병을 오른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다. 1959년 4월 5일, 법사님의 제안과 당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선후배들의 동참으로 모셔진 보살님이다. 이름도 '호미 든 관음성상'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왜 호미를 들었을까? 호미 든 관음성상을 모신 지 50여 년째에 쓴 선진규 법사님의 자작시 〈울음〉에서 그 심정을 "배고파 보릿고개 넘지 못하는 헐벗은 산야에/ 할 수 없이 우리는 부처님 손에 호미를 들게 하고 울었습니다"라고 토로하신 바 있다. 한국전쟁의 직후, 정치도 사회도 혼란스러웠고,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야 할 불교계마저도 정화불사로 한 치 앞을 헤아리기 힘들었던 시절, 청년 불자의 심정은 '울음' 아니 '웃음을 주고 싶었던 간절한 울음' 그것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호미 든 관음성상'은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고통의 바다 보릿고개를 숨차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중생들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를 앞섰던 젊은 불자가 호기롭게 내보인 원력의 표현이었다. 벌써 60여 년, 그 젊은 불자는 여전히 젊은 불자로 우리 머리에 남겨져 있는데, 속절없이 우리네 곁을 떠났다. 하지만 우리네 곁을 떠나는 지금에도 그를 여전히 시대에 앞서 있는 선지식으로 우리 곁에 남겨두고 싶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60여 년을 불국토의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청년으로만 살아야 했던 그 간절한 원력의 실천자이자 동행자였던 그 분이 우리에게 짤막한 회향사를 남겼다. 정토원 사부대중의 수행수칙과 수행목표라는 이름으로. 그가 평생의 서원으로 삼았던 현생국토의 꿈을 담은 수행수칙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지면으로나마 청년 선진규 법사의 정신을 기린다. 정토원 사부대중에 남기신 수행수칙이지만, 우리 한국의 청년이어야 할 불자들에게 새기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1. 내 자신이 나에게 미안한 짓 하지 말자.
2. 남에게 욕먹을 언행 하지 말자.
3. 한없이 능력껏 베풀되 돌아보지 말자.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재미있는 스토리로 설법을

지거(智炬) 스님의 〈보림전〉 권8에 보면 혜가(慧可)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가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은 '설중단비(雪中斷臂)의 일화'가 나온다.

혜가(487~593)대사는 위진남북조시대 북위(北魏)의 스님으로 달마대사를 찾아간 때는 폭설이 내려 소림사는 온통 눈으로 뒤덮였다. 그가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으나 묵묵부답이다. 혜가는 진리를 구하고, 스승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차고 있던 단도를 뽑아 왼쪽 팔뚝을 끊어 달마대사에게 바쳤다. 이것이 '혜가의 구법단비(求法斷臂)'라는 고사이다.

혜가(慧可)는 "저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라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달마대사는 "그래,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 오너라.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마" 라고 하자, 혜가는 "제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달마대사는 "그렇다.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은 실체가 없는 너의 망상이다. 본래 불안한 마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다. 부질없이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면 네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혜가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고, 인식의 주체로서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유명한 선가의 안심(安心)법문이고, 혜가는 달마대사의 뒤를 이어 선종의 2대조사가 되었다.

리잉의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에서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과 교수는 "당신이 부유한 것을 생각하면 부유해질 것이고, 박식하길 원하면 박식해질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진심으로 그 일을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선종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부처이다"라고 한 명제와 같은 말이다. 불안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깨달은 진리가 "마음이 망상을 일으키면 본래 없는 귀신이 대낮에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인간은 유희(遊戱)적이고, 설명하는 동물이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존재는 인간 밖에 없다.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뜻한다.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도 사람의 공감을 자아내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 대중 스피치나 기업의 광고에서도 스토리텔링은 매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이다.

부처님의 생애나 경전의 내용, 선사들의 구도와 깨달음의 모습을 이야기로 소설처럼 편집하여 설법한다면 드라마를 보듯이 쉽고 흥미진진하게 공부할 수 있다.

특히나 선사들의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투철한 수도와 깨달음의 내용은 드라마틱하다. 선화두 공안의 내용은 제자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극도로 축약되고 상징화된 기획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큰 깨달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의 역사와 고승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전등록〉이나 〈삼국유사〉와 인생의 역전과 승리의 스토리를 담은 사마천의 〈사기〉는 스토리텔링 설법의 좋은 설법자료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說

北신계사 향한 혜해 스님의 그리움

조계종 비구니 원로 혜해 스님의 입적 소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대중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혜해 스님의 인생이 곧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다.

1944년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서 출가한 스님은 한반도 분단의 산 증인이었다. 해방 이후 남하해 한평생 용맹정진하며 승·재가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마음속 한 편에는 언제나 금강산 신계사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있었다. 신계사는 남북불교교류의 상징이기도 하다. 2004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힘을 모아 신계사 복원 불사를 일궈냈기 때문이다. 혜해 스님은 복원이 진행된 4년간 고령에도 십여 차례 방북해 감동하고 또 환희했다.

생전 혜해 스님은 "금강산에서 출가했으니 금강산에서 이 생을 마치겠다"는 원력을 밝혔다. 그러나 스님의 간절한 뜻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10월 신계사 낙성식 이후 단 한번도 금강산를 밟지 못한 채 원적에 들었다. "금강산에 가서 신계사도 보고 법기암도 둘러보며 노닐다 가겠다"는 말에 금강산을 향한 스님의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난다. 스님은 "유골을 금강산에 뿌려달라"고 유언했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막막한 일이다.

스님의 원력은 사리 30여 과로 남았다. 사리는 주석처인 경주 흥륜사 법기암에 안치될 예정이지만, 유지에 따라 일부는 북한 신계사 법기암에 안치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남과 북에 나눠 안치될 스님의 사리는 남북불교계의 뿌리가 하나이며 남북간 동질감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것이다. 혜해 스님의 삶과 드높은 원력이 얼어붙은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가져올 씨앗이 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포교사단 20주년을 축하하며

6월 10일은 제7회 포교사의날이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포교사단 출범 제20주년 및 포교사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포교사들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일꾼으로 새로운 원력을 모았다.

현재 포교사단은 한국불교 전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다양한 전법현장에서의 포교사들의 열정과 종단 행사와 법회에서의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모습은 포교사단의 역할을 보여준다. 포교 뿐만 아니라 수행분야까지도 5대 수행법을 전파하는 새로운 수행전법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포교사단이 20년의 어떻게보면 짧은 역사에도 한국불교의 중추로 자리한 것은 포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포교사단은 앞으로 출가자 감소에 따른 승단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포교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법사로서의 역할도 부여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포교사단은 전문교육 강화와 수행가풍 확립 등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포교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포교사 고령화와 포교사 지원자 감소의 문제, 별다른 지원없이 원력에만 의존하여 활동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사찰 스님, 신도들과의 활동영역을 둔 불협화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 포교사들의 역할이 많아지고 위상이 강화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로, 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